경제혁신 3개년 계획 경제의 틀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.
대한민국 제도약의 힘, 창조경제
경 제 혁 신
희망의 새시대
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보도자료
http://www.motie.go.kr

2016년 3월 18일(금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3.17(목) 오후 [ ]시 이후 보도 가능)

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동북아통상과장 조수정(044-203-5690), 사무관 윤진영(5691)

한중 FTA의 실질적 산업협력의 틀 마련 및 교역 활성화

- 한중 FTA 이행 위원회 연1회 이상 개최 -
- 한중 FTA 서비스 · 투자 협상 연내 조기 개시 -

□ **한중 양국은** FTA발효 후 처음으로 개최된 통상장관회담에서, 양국간 경제협력관계를 **더욱 공고히** 하기 위해 **한중 FTA** 이행채널을 **연 1회 이상** 가동하고, 양국간의 서비스·투자의 확대를 위해 **2단계 서비스·투자 협상**도 **연내 조속한** 시일내에 개시하기로 합의함

* 한중 FTA 이행체계 : 공동위원회, 13개 분야별 위원회, 2개 소위원회, 1개 소작업반

○ 또한, 양국간 현안으로 제기되어 있는 **국산 방향성 전기강판과 아크릴 섬유에 대한 반덤핑 조사** 등 통상현안도 원만하게 처리하기로 합의함

□ 한중 양국은 3.17(목), 중국 북경에서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가오 후청 상무부장(장관급)을 수석대표로 하여 통상장관 회담에서 ▲한중 FTA의 효과적 이행 및 효과 극대화 ▲ 한중 정상간 합의사항 이행 점검 ▲ 한중 양국의 통상현안 해결 등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둠

○ 금번 개최된 한중 통상장관 회담은 한중 FTA 발효 이후 처음 개최되는 회담으로서, ▲한중 FTA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FTA 이행위원회의 격상, 서비스 투자 2단계 조기개시 등 제도적 틀을 만드는 한편, ▲전기강판 반덤핑 등 비관세장벽 해소 ▲소비재·문화·컨텐츠·관광·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로 교역을 활성화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

□ 금번 통상장관 회담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

① 한중 FTA 서비스·투자협상 조기 개시

○ 양국은 금번 통상장관회의에서 FTA 서비스·투자협상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시하기로 합의하여 그간 제조업 중심의 교역구조를 서비스분야로 다변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

- 중국이 경제성장을 내수중심으로 전환하면서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이며, 중국의 대한 투자도 최근 3년간 4배 급증하고 있어 특히 서비스투자협상의 조기개시를 통해 양국 투자자 보호 및 경쟁력 강화 필요

* 중국의 대한투자 4배 급증(억불) : (13) 4.8 →(14) 11.9→(15) 19.8

○ 서비스·투자협상이 조기에 개시되면, 양국간 문화, 컨텐츠, 의료, 관광 등 서비스 분야 신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, 양국의 서비스 분야 경쟁력을 제고할 전망

② FTA 이행기구 연 1회 이상 개최 및 격상 추진

○ 한중 양국은 FTA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분야별 위원회/작업반을 연 1회 이상 개최하여 FTA 합의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도록 하고, 운영상황을 양국 통상장관이 위원장인 한중 FTA 공동위원회를 통해 점검함으로써 FTA의 효과의 조기 가시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함

* 한중 FTA 이행체계 : 공동위원회, 13개 분야별 위원회, 2개 소위원회, 1개 소작업반

○ 특히, 비관세조치 작업반 등과 같이 합의도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이행위원회의 경우 현행 과장급 수석대표를 국장급으로 격상시켜 나가는 것도 검토해 나가기로 함

최미화 / 홍보담당관 / 2016-03-18 10:38:56

③ 반덤핑 조치 등에 대한 원만한 해결 노력

○ 중국에서 반덤핑 조사가 진행 중인 **한국산 방향성 전기강판과 아크릴 섬유**에 대해 공정한 조사 진행 등 한국측 관심사항을 적극 반영하기로 하고, 반덤핑 조치가 장기간 부과중인 **비스페놀A와 아세톤**에 대해서도 재심을 통해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함

- 이와함께, 철강 후판 등의 경우 민간협회간 자율협의 등을 통해 반덤핑 제소를 사전에 방지하기로 함.

④ 품목변경, 세수우대 등 요구사항 반영 노력

○ **HDMI 모니터**의 컴퓨터용 모니터 분류, **해상간이통관품목에 화장품 포함** 등 한국측 관심사항은 중국내 유관부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함

○ 또한, **삼원계 배터리 장착 전기버스**에 대한 보조금 지급문제는 상무부가 통상 주무부처로서 외국인투자자 보호를 고려하여 관련 부처와 협의하기로 함

⑤ 양국정상간 합의사항의 충실한 이행

○ 양측은 우리 새만금, 중국의 염성, 연태 등 한중 산업협력단지 건설을 구체화하여 이달에 **광동성 혜주를 추가 지정**하고 4월중 방한하는 통상차관과 양국간 기업유치 방안, 유치 독려 등을 협조요청할 예정이며, 인프라, 플랜트 등 양국 기업간 제3국 공동진출 등 양국 정상간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, 양국간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함

⑥ 다자통상체제 협력

○ 양국은 아시아·태평양경제협력체(APEC), G20*, 아시아-유럽정상회의(ASEM) 등 다자·지역 차원의 논의에 있어 양국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함

* 금년 7월 중국 상하이에서 G20 통상장관회의 개최 예정

○ 또한, 양국이 함께 참여 중인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(RCEP), 한중일 FTA 추진시 양국 간 긴밀한 공조 하에 연내 협상이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음

[투자유치 활동 및 재중 투자기업 간담회]

□ 주형환 장관은 금번 한중 통상장관 회담에 앞서 3.17(목), **중국 주요 기업 12개사를 초청,** '한·중 투자협력 증진'을 주제로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도 개최함

<한중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개요>

○ 일시/장소 : '16.3.17(목) 10:30~13:00 / 중국 북경 하얏트 호텔 * 오찬포함
○ 참석기업 : 랑시, 치후 360, 에버케어, 왕이, 용후이, 녹지, 신화련, 구천, 쭝칭뤼, 광치, 골드윈드, 유젠

○ 주형환 장관은 이 자리에서 "한·중 양국은 고급 소비재·서비스 산업·신성장 제조업 분야의 교역과 투자협력을 통해 내수와 수출의 균형, 공급 과잉 부문의 구조조정 등 양국 경제의 구조전환을 촉진하고 상생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."고 강조하였음

○ 금번 한·중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은 주형환 장관 취임이후 해외에서 가진 첫 번째 외국기업과의 투자 라운드테이블로,

- 산업부는 향후에도 중국기업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한국 경제 및 국내 기업의 성장동력으로 중국기업의 투자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.

최미화 / 홍보담당관 / 2016-03-18 10:38:56

□ 또한, 주형환 장관은 중국에서 활동하는 우리 기업들과 **재중 투자기업 간담회**를 개최하여 중국내 사업현황과 애로사항을 파악하였음

<재중투자기업 간담회 개요>

○ 일시/장소 : '16.3.17(목) 10:30~13:00 / 중국 북경 하얏트 호텔
○ 참석기업 : 중국삼성, 현대자동차그룹, SK, CJ그룹, POSCO China, 하나은행, 포스코 대우, 북경한미약품, 미샤화장품, KOTRA

○ 참석 기업인들은 중국내 현지 상황 설명과 함께 삼원계 배터리 이슈, 제품 인허가·등록, 임상 등의 인허가 문제 등 애로사항을 설명하였고

○ 주 장관은 향후 이틀간 중국 3개 부처 장관들과 통상장관회담, 품질검사검역회의, 산업장관회담을 연달아 개최할 예정인바, 중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우리기업의 영업애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언급

[AIIB 총재 면담]

□ 주형환 장관은 한중 통상장관회담에 앞서 **3.16(수) 진리췬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(AIIB) 총재와 면담**을 갖고 한국기업의 AIIB 프로젝트 참여 확대 등 **한국과 AIIB간 협력방안**에 대해 논의하였음.

○ 이 자리에서 주형환 장관은 한국기업의 해외수주 경험 및 성공사례 등을 소개하고, 인프라개발에 경험과 역량을 가진 **한국기업의 AIIB 프로젝트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**하였음.

○ 주 장관과 진 총재는 에너지 효율 분야 등 AIIB의 **주요 투자분야**와 **프로젝트 발주 예정시기 등**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,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음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동북아통상과 조수정 과장(☎ 044-203-5690) 또는 윤진영 사무관(☎ 044-203-569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MOTIE
ISTRY OF
DE, INDUSTRY & ENERGY

최미화 / 홍보담당관 / 2016-03-18 10:38:56